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 관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강 석 기*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와 이에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대전과 충남지역에 있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대학생들이며, 분석은 SPSS win 12.0과 AMOS 4.0의 통계프로그램에서 구조방정식 모형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변인들은 자아존중감, 조절의 변인들이었고, 대인관계 태도의 변인들은 각각 조절과 자아존중감을 거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하여서만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대인관계 태도의 변인들은 조절을 거쳐서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인터넷 중독에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주제어 :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인터넷 중독, 구조방정식 모형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I. 서 론

오늘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우리 사회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식정보화 사회는 인터넷의 출현으로 그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우리 생활은 인터넷의 사용으로 편리해지고 윤택해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56.4%가 주 5일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 3~4회가 22.8%로 전체 국민의 79.2% 이상이 인터넷을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천만 여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주당 20시간 이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자살, 범죄 등이 청소년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한국통신문화재단, 2004). 이와 같이 인터넷의 이용은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화를 촉진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 속에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조절과 적응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에 적당한 조절을 통한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심리·사회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 이는 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따른 인터넷의 부작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각 분야에서 과거의 물질 지배경향에서 지식정보화의 지배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터넷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있다. 반면에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으려는 경향이 팽배하여 인터넷 중독이라는 신종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접하고 있다.

우리는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과 태도에 따른 행동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인터넷을 통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자연히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면서 고립이 되어가는 인간소외의 현상이 가중되어 부정적인 대인관계의 태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자신의 친구나 가

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진다(Gardyn, 2000).

개인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력이 부추겨져서 대인관계에 대한 태도로 부정적인 자아존중감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원하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기 위한 자신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자아존중감에 손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인터넷은 자신의 완전한 노출 없이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왜곡된 친밀감으로 순수한 목적이 아닌 대인관계의 태도를 형성한다(Watters, 이소희 외, 2001). 이러한 결과들은 인터넷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독이라는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결과에 의해서다. 즉 사이버 상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정보화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편익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심리·사회적인 병리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일탈현상으로 규정한다(Goode, 1997). 우리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일탈에 대한 병리적인 현상을 인터넷의 규범으로 예방을 위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가진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대인관계 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거쳐서 어떠한 경로로 인터넷 중독에 그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인관계 태도가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의 영향력에 대한 구조적 모형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역기능 해소의 예방적 노력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탐색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인관계 태도는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둘째,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셋째, 조절과 자아존중감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넷째,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다섯째, 조절은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대인관계 태도

대인관계 태도(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는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 또는 사회적 논쟁거리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하는 비교적 안정되고 평가적인 성향을 말하며, 신념, 감정, 평가에 따른 행동경향성이 조합된 것이다. 잘못된 대인관계 태도나 엄격한 대인관계 태도를 경험한 자녀는 사회에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용문, 1985). 그러나 지나치거나 무조건적 수용의 태도를 보일 때에는 감정이나 분노의 통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임선화, 1987). Freud(1923)는 어린시절 아동기의 초기 경험이 일생의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양육자인 부모의 태도에서 갖게 되는 경험들이 중요하며, 사회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Nye(1958)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비행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부모의 태도가 온정적이고 허용적 일수록 자녀들의 적응력이 높아지게 되며, 부모의 태도가 적대적이고 통제적일수록 그 자녀는 공격적이 되어져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ussen, Conger, & Kagan, 1974).

태도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태도로 인한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다(신민섭 외, 1993)는 연구와 홍강의(1987)의 정신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오경자·이혜련(1990)은 정신과적 장애의 원인 중, 어린시절 부모에 대한 태도에 따른 관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강현숙(198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Saavedra(1980)의 시각은 부모보다도 청소년이 가지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들 자신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Belsky & Vondra(1985)는 개인의 심리적 기능이나 관계적 기능이 부모와 발달하는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나 관계의 질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중에서 또래에 대한 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을 떠나 2차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보이는 것이 청소년기의 또래 태도이다. 이용교(1992)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면서 귀가 청소년이 계속적으로 가출할 때에는 청소년 주변 환경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문제가 증폭된 결과라고 하였으며, 가출의 이유들 중 하나로 또래집단의 압력을 지적하였다. 학교폭력의 문제에서도 또래의 영향이 크게 미치고 있으며, 폭력집단에서의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 한 부분이 대인관계의 태도라 할 수 있다(김문섭, 1999). 폭력피해 후의 반응은 대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게 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공포심이나 회피적인 대인관계의 태도를 보인다(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은 개인의 환경에서 중요한 타자들인 부모, 교사, 또래들이 그 청소년을 대하는 대인관계의 태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대인관계 태도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성과 정서, 인격형성, 사회화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대인관계 태도에 따라서 신경증과 정신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Kolb & Brodie, 1982). 결국 대인관계 태도가 긍정적일 때 청소년들은 건강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사회적응도가 높은 반면, 부정적일 때에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존중감이 형성되어 사회관계에

서 부적응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Allport(1937)는 대인관계 태도를 정신적, 신경적 준비상태로서 경험을 통하여 준비되고 서로 관계된 모든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인관계적인 반응에 직접적, 혹은 역동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즉, 태도는 현대의 대중사회에서는 늘 변화에 압력을 받는다(Gleitmain, H., 장현갑 외 역, 1999; 재인용). 태도에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 관계를 통한 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한 개인의 내면적 가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인 영향이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느끼는 자각에 의해서 형성하고 그 가치를 부여한다. 자아존중감을 말할 때, Ro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사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slow(1954)는 자아존중감을 강력한 인간의 욕구중의 하나임을 주장하였다. Bandura(1986)는 자아존중감이 개인적 자신들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ogers(1961)는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인성의 핵심이 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의 연구들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정신건강, 건강상태, 약물남용, 우울, 범죄 자살, 사회관계의 문제 등에 관련이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Rosenberg, 1965; Bolognini, et al., 1966; Harter, 1986; Yarcheski & Mahon, 1989; Cornwell & Schmitt, 1990; Dent, et al., 1993). 특히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태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개인의 내적 변인들로 자아존중감이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에 중요한 예언적 변인의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다. 신종순(1990), 심응철(1992), Edwards (1996) 등의 연구에 의하면 낮은 자아존중

감의 청소년은 비행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기 표현과 사회적 기술, 실용적 지식 등에서 긍정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의 수준이 낮다고 밝히고 있다(심희옥, 1998).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가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는지이며, 이는 자아개념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평가적 구성요소이다(Jaffe, 1988). 자아개념은 자아에 관한 지식이고 자아존중감은 자아의 상이한 속성들에 대해 개인이 어떠한 느낌을 갖느냐 하는 측면이며 감정적 요소이다(안범희, 2000). Coopersmith(1967)는 이들 두 요소를 모두를 고려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Mead(1934)는 자아가 태어날 때와 같은 상태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태도를 통해서 발달하게 되며, 사회적 경험과 활동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만약 외부환경이 자아존중감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태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의 대인관계 태도가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환경이 좋게 만들어지면 대인관계의 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자아존중감의 바탕이 되는 자아는 사회화 과정인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쳐지는가의 모습에 따르는 경험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지어지는데, 이는 인간의 자아존중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Cooley, 1964). 이러한 태도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감정이 나빠지게 되었을 때, 자아존중감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사회관계 중의 하나인 대인관계의 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1차적인 사회구조인 가족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 자녀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Coopersmith(1967)는 부모가 수용적일 때 청소년 자녀들은 사회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Thomas(1972)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방임적, 비판적인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도 김유연·박성연(2001)은 부모의 태도가 청소년의 가치관의 관계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2차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또래에게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와 또래의 애착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1997). 정신치료나 상담에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준다고 보고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대인관계 태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구하러 온다. 이들 중에서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치료를 통해 더 나은 자아존중감을 얻는다는 것이다.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을 더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Zilbereld, 1983). 여기서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개입의 영향을 주는 것이 사회화 과정에서의 대인관계 태도라고 할 수 있다.

3. 조절

조절(regulation)은 우리 인간이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려면, 적절한 상황의 압력 하에 저항하는 능력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능력이 말한다. 이는 개인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조절하며, 대처하고, 개인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자기조절을 한다는 것이다(Mischel, 손정락 역, 1994).

조절은 1980년대에 미국의 사회심리학과 성격심리학의 분야의 연구에서 크게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그 개념이 다양한 측면에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후부터 자기조절학습, 자기조절, 자기관

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 조직, 임상, 공중보건, 산업, 건강심리학의 분야의 연구들에서 조절이 관련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날의 연구 동향은 광역화된 지역사회에서 개인이 가져야하는 책임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기조절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Boekaerts, Pintrich, & Zeidner, 2000; Boekaerts, Maes, & Karoly, 2005).

Kischenbaum & Wittrock(1984)는 조절을 개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폭 넓게 잠재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Baumeister, Heatherton & Tice(1993)는 긍정적인 수행 결과를 지연하는 능력, 인내, 사고의 통제, 고통의 인내, 감정상태 변화의 수행과정이라 하였다. Mischel, Ebbesen, & Zeiss(1972)는 조절이 개인이 적절한 외현적인 주의 분산 활동을 하거나, 자신의 정신내용이나 개념을 바꿈으로써 변형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따라서 조절은 대인관계나 행동에 대한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긍정적 감정과 태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개인들은 적응을 위해서는 태도와 감정, 행동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절하여야 만이 자신의 만족이나 적응행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예기사회화의 단계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조절의 방법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4.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의 사용이 지나쳐서 이용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직업적·사회 적응적 기능의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Goldberg(1996)가 병리적이고 강박적으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일컬어서 처음 사용하였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또한 인터넷 중독이라

는 용어는 Goldberg(1996)가 인터넷 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라고 표현한 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외 Suler(1996)와 Young (1996) 등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여 왔다.

중독의 일반적 징후는 특정물질 관계나 행동의 몰두에서 비롯되며, 특정물질의 이용이나 행동의 유형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타인의 염려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특정물질의 이용이나 관련 행동들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중독에 관계없이 모든 중독증에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Egger & Rauterberg, 1996). 최근까지는 중독이라는 현상은 약물의존 사례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컴퓨터 사용에서는 명백히 약물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현, 2000). 그러나 유사한 판단기준이 섭식장애(Lacey, 1993)나 병적인 도박(Mobilia, 1993), 컴퓨터 중독(Shotton, 1991), 비디오게임 중독(Keepers, 1990)과 같은 문제행동에 적용이 되어 왔다. 같은 맥락에서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이 강박적인 도박이나 쇼핑, 흡연과 알코올 중독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재인용).

인터넷의 중독에 대한 논란은 일부에서 라디오나 TV가 처음 나타났을 때와 같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오늘날 정보화 사회의 컴퓨터 사용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급속하게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컴퓨터 중독과 관련된 병리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Young, 1998). 특히, 청소년들 중에서 대학생들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집단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내의 인터넷기반이 강화되어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시간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Moore, 1995; Kandell, 1998).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를 지적하면서 인터넷 중독을 경계하는 추세이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2). Young(1997)은 인터넷 중독에 빠져드는 원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숨은 성격적 문제의 발현, 성적인 만족추구, 인정의 욕구, 사회적 영향력 등에 대한 대인관계 태도를 사이버 공간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들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전과 충남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18세에서 24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의 관계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과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4년 3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완성된 질문지를 대상으로 하여 2004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전부 713부였고, 이중에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정한 역산 문항간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592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최종적인 연구 대상자들은 성별로는 여자가 326명(55.1%), 남자가 266명(44.9%)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110명(18.5%), 2학년이 220명(37.2%), 3학년이 104명(17.6%), 4학년이 158명(26.7%)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관련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SPSS win 12.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은 기술통계, 요인 분석, 상관분석, 문항 간 내적 신뢰도 분석,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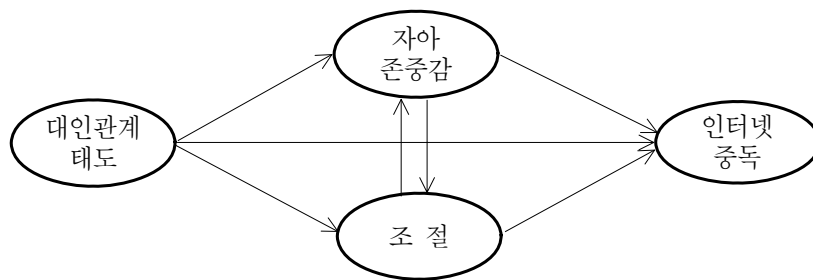
본 연구모형은 대인관계 태도, 조절,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수로 가정하고 이러한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관련이 되는 태도의 구성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조절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사용하고 인터넷 중독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인과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단계별 변수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주요 구조 방정식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X_4 = \alpha_4 + \beta_{41}X_1 + \beta_{42}X_2 + \beta_{43}X_3 + e_4 \quad (\text{공식1})$$

$$X_3 = \alpha_3 + \beta_{31}X_1 + \beta_{32}X_2 + e_3 \quad (\text{공식2})$$

$$X_2 = \alpha_2 + \beta_{21}X_1 + e_2 \quad (\text{공식3})$$

α :상수, X_1 :대인관계 태도, X_2 :자아존중감, X_3 :조절, X_4 :인터넷
 β_{ij} : X_i 와 각 독립변수들 간의 회귀계수, e :잔차.



[그림 1]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4. 측정도구의 구성

대인관계 태도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하고,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이로 인하여서 상당한 만족감을 얻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태도를 알아보는 검사들은 자신의 선호도와 강점을 평가하기 위한 태도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의 변인들과 관련하여서 장연집 외(1999), 강문희 외(2003) 에서 ‘사람을 대하는 경우’의 척도를 재인용하여 대인관계의 태도에 관련된 7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아주 싫어한다(+1점)’에서부터 ‘아주 좋아한다(+5점)’ 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각 척도의 주요 내용은 <표 1> 과 같다.

<표 1> 대인관계 태도의 각 척도별 주요 내용

하위척도 명	문항별 내용	문항 수	약어
대인관계 태도	친화력	4	x1
	사교력	3	x2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아존중감척이다.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어느 정도로 높은가를 알아볼 수 있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로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1점), 에서부터 ‘매우 동의 한다(+4점)’ 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으로서 긍정문항 5문항과 부정문항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산문항은 5, 6, 8, 9, 10이다. 각 척도의 주요 내용은 <표 2> 와 같다.

조절은 Hobfoll(1989)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조절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써 자신, 타인, 능력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Boekaerts,

Pintrich, & Zeidner(2000)의 ‘Handbook of self-regulation’중에서 ‘Communal Mastery Scale’을 재인용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역산문항은 7번 문항이다. 각 척도의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인터넷 중독에 사용된 척도는 Young(1998)이 온라인 중독센터(The Center for On-Line Addiction)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척도(Internet Addiction Test: IA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맞게 15문항을 선택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대단히 그렇다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변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며, 척도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의 각 척도별 주요 내용

하위척도 명	문항별 내용	문항 수	약어
자아존중감	만족성	7	y1
	자긍심	3	y2
조절	타인	4	y3
	자신	4	y4
	능력	2	y5
	부적응	5	y6
인터넷 중독	중독성	6	y7
	도피성	4	y8

5.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win 1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과 문항간 내적 일관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 과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측정변수들은 .75~.88까지 전반적으로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어 신뢰도가 추정이 된다.

<표 3> 대인관계 태도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문항별 내 용	측 정 항 목	요인 적재값	eigen value	α 계수
친화력(x1)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883	3.134	.85
	행동을 주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한다.	.816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803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하는 것을 좋아한다.	.795		
사교력(x2)	다른 사람의 지원과 격려를 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814	1.484	.75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을 좋아한다.	.779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 한다.	.679		
Cumulative % of Variance			79.557 %	

요인분석의 결과 대인관계 태도의 경우 총 7개 문항의 점수를 투입하여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하여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하여 총 변량의 79.557%를 설명하는 상태에서 2개의 뚜렷한 요인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는데,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이름을 부여하기에 적당한 것이었다.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의 경우 총 35개의 문항들의 점수를 투입하여 요인의 수를 8개로 정하고 고유값(eigen value) 1 이상을 기준하여 Varimax 방식으로 회전한 결과 총 변량의 70.511%를 설명하는 상태에서 서로 구분되는 요인구조를 보여주는 결과를 얻어 타당도를 추정할 수 있었다.

<표 4>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의 요인분석 및 신뢰성 분석결과

문항별 내 용	측 정 항 목	요인 적재값	eigen value	α 계수
만족성(y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08	4.392	.78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777		
	나는 좋은 소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757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750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70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648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619		
자긍심(y2)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715	1.278	.80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681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579		
타 인 (y3)	나의 일은 친구, 가족, 동료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다.	.771	2.643	.77
	다른 사람들의 목표를 도와줌으로써 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744		
	친구, 가족, 동료는 주로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의해 완성된다.	.715		
	내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는 나의 삶을 많이 조절할 수가 있다.	.529		
자 신 (y4)	친구,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조절을 아주 잘한다.	.745	1.642	.76
	친구, 가족과 함께 할 때, 나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735		
	도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594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592		
능 력 (y5)	나의 일과 타인과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813	1.063	.88
	나에게 지지를 가지려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것은 할 수 있다.	.766		
	온라인 접속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줄여서 이야기 하거나 숨긴다.	.785		
부적응(y6)	평소에는 우울하고 불안했다가도 접속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767	5.890	.81
	사람과 어울리기 보다는 인터넷을 사용하며 시간 보내기가 더 좋다.	.735		
	인터넷을 접속할 생각에 몰두해 있거나 접속해 있는 듯한 공상을 한다.	.726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물을 때 숨기거나 변명을 한 경험이 있다.	.627		
중독성(y7)	인터넷 때문에 집안 일(학업, 업무)을 미룬 적이 있다.	.842	1.824	.87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오랫동안 인터넷을 사용하게 된다.	.814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먼저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된다.	.688		
	조금만 더 해야지 하면서 인터넷을 계속 하게 된다.	.659		
	밤늦게까지 접속해 있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잔다.	.658		
	인터넷을 너무 오래한다고 주위 사람에게 불평을 듣는다.	.604		
도피성(y8)	인터넷이 없다면 따분하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721	1.003	.81
	온라인상의 친구를 만들어본 적이 있다.	.716		
	인터넷 방해물을 받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많이 낸다.	.673		
일상생활의 괴로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한다.		.623		
Cumulative % of Variance			70.511 %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상관관계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간의 상관을 구해 본 결과 모두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고 0.23 이하의 값들이 나타남으로 변인들 간에 상호 다중공선성이 확인되었다.

〈표 5〉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 분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 절	인터넷 중독	M	SD
대인관계 태도	1.000				22.44	3.70
자아존중감	.214**	1.000			32.10	2.68
조 절	.224**	.127**	1.000		31.58	3.47
인터넷 중독	.093*	.026*	.013*	1.000	38.55	9.25

*p < .05, **p < .01, N=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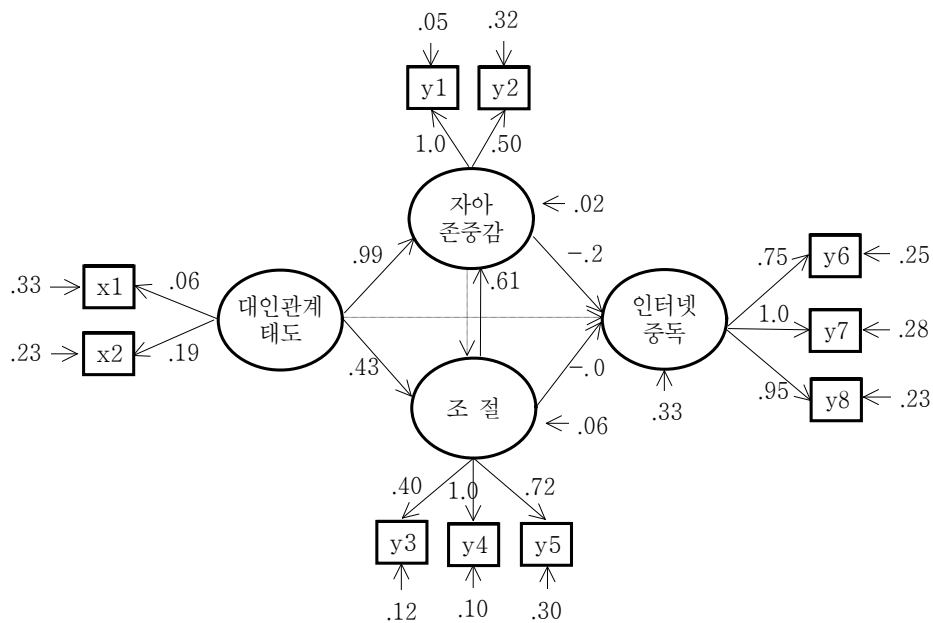
2. 인과구조 모형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로 계수 행렬의 동일성 여부를 검증해본 결과 잠재변수들 간 공분산행렬이 동일하다는 가설에 대한 적합도가 충분한 것으로 입증되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모형의 계수추정 방법은 최대 우도법(ML)을 사용하였다.

사전의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약어(x1~x2)을 ‘대인관계 태도’ 잠재

변수의 관찰변수로 하고, 약어(y1~y2)를 ‘자아존중감’ 잠재변수의 관찰변수로, 약어(y3~y5)를 ‘조절’ 잠재변수의 관찰변수로, 약어(y6~y8)을 ‘인터넷 중독’ 잠재변수의 관찰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자료를 대상으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여러 변인들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각 지수와 적합성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각 관찰변수와 잠재변수에 대해 얻어진 요인계수, 경로계수 및 오차계수 등과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그림 2]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 및 인터넷 중독
변인간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

<표 6> 에서 보듯이 먼저 절대부합지수의 카이자승통계량(χ^2 Statistics) 값이 매우 크고 그 유의도가 .05이하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표집이 592

명으로 상당히 큰 규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00~200명의 표집에 대해서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카이제곱통계량(χ^2 Statistics) 값에 기초한 유의도 검증방식을 일단 유보하고 타 적합도 지수의 기준들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제안된 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근사원소평균자승잔차(RMSEA) 값은 모두 권장수준인 0.05 이하로서 관찰행렬과 추정행렬 사이의 잔차평균이 본 모형의 적합성을 보장할 만큼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부합지수(GFI) 역시 권장수준인 0.90보다 높아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관찰변인들 간의 공변량을 전혀 가정하지 않은 기초모형에 비교한 적합도를 나타내는 증분부합지수인 수정부합지수(AGFI)도 권장수준인 0.90을 넘어서 양호하였다. 상관행렬로 분석하는 잔차제곱평균의 제곱근(RMR)은 권장수준인 0.05보다 작으므로 적합도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한 표준부합지수(NFI)는 0.867로 나타났고, 비교부합지수(CFI)는 0.895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권장수준인 0.90을 넘지는 않았지만 권장수준에 근사한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서, 적합도 지수의 수용 수준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적합도의 수용 수준을 나타내는 절대치는 없으며,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준을 0.90으로 제시할 뿐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조선훈, 1996; 배병렬, 2002; 조현철, 2003). 이상의 적합도 지수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구조방정식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되는 적절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6〉 변인들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들

χ^2	χ^2		RMSEA	GFI	AGFI	RMR	NFI	CFI
	값	p						
310.26	78	0.000	0.041	0.936	0.902	0.023	0.867	0.895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경로계수)의 추정치는 $0.99(t_{값}=3.45, p < .001)$ 로 유의함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좋은 대인관계 태도를 가진 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태도는 조절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경로계수)의 추정치는 $0.43(t_{값}=3.42, p < .001)$ 으로 유의함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은 좋은 대인관계 태도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조절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의 추정치는 $0.61(t_{값}=2.89, p < .001)$ 로 유의미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강한 조절을 가진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의 추정치는 $-0.23(t_{값}=-2.53, p < .001)$ 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며, 자아존중감이 약한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도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가지며, 관련모수의 추정치는 $-0.09(t_{값}=-0.63, p < .001)$ 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며, 조절이 약한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인관계 태도와 조절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과 조절은 인터넷 중독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대인관계 태도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하여서만이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조절만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나타내주고 있음이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을 설명할 수 있는 청소년의 대인관계 태도와 이

에 관련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통하여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들을 설정할 때 모형에서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를 예상하고 대인관계 태도, 자아존중감, 조절이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검증되었다.

첫째, 대인관계 태도는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한 간접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대인관계 태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며,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조절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조절이 약할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확인적 경로모형을 검증해 보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에 중요한 관계가 있으며, 정적인 관계일수록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고, 자아존중감과 조절도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관계가 있으며, 부적인 관계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강한 중독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좋은 대인관계 태도는 자아존중감과 조절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좋은 대인관계 태도를 형성하는 대인관계의 증진 방안

을 위해 사회적 행동예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성인의 완성된 사회화 이전에 만들어져가는 예기사회화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간중심적 상담과 부적응의 치료적인 기관의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인간중심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접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들의 조절을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조절을 위한 구조적인 생태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강문희 · 이광자 · 박경(2003). 인간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강현숙(1989).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섭(1999). 청소년문제. 청소년학총론. 서울: 양서원.
- 김유연 · 박성연(2001). 부모 양육태도 및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물질주의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13.
- 배병렬(2002).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전: 도서출판 대경.
- 신종순(1990). 고등학생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민섭 · 오경자 · 홍강의(1993).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혼란과 부적응행동, 한양대학교, 대학생활연구, 11, 71-84.
- 심응철(1992). 심리적 성장환경과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희옥(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안범희(2000). 성격심리학. 서울: 하우.
- 아산사회복지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 오경자 · 이혜련(1990). 한국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증후군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3(1), 33-48.
- 이용교(1992). 가출.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임선화(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척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집 · 박경 · 최순영(1999). 현대인의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장휘숙(1997). 애착과 희망의 관계에서 자아상과 자아존중감의 중재역할, 인간발달연구, 4(1), 117-132.

- 조선배(1996). LISEL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영지문화사.
- 조용문(1985).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현철(2003).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도서출판 석정.
- 하지현 · 조두영 · 이훈진 · 양은주 · 우종인 · 류인근(2000). 국내 인터넷 중독의 현황. 정신병리학, 9(1), 59-68.
- 홍강의(1987). 청소년 정신과 입원환자의 가족역동. 서울의대정신의학, 12(1), 23-40.
- 한국정보문화센터(2002). 인터넷 중독 상담전략.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3). 2002년도 국민정보생활현황조사보고서.
- 한국통신문화재단(2004). 청소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 Gleitman, H., 장현갑 · 안신호 · 이진환 · 신현정 · 정봉교 · 이광오 · 도경수 역(1999).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Mischel, W., 손정락 역(1994). 성격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Watters, S. O.(2001), 이소희 · 오영재 · 김민 · 김민규 · 김민정 · 김호영 · 도미향 · 방은령 · 조성연 · 조아미 역(2003). 인터넷 중독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llport, G. W.(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enry Holt.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umeister, R. F., Heatherton, T. F., & Tice, D. M.(1993). When ego threats lead to self-regulation failure: Negative consequences of high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41-156.
- Belsky, J., & Vondra, J.(1985). Characteristics, consequences, and determinants of parenting, In L. L'Abate(ed.). *Handbook of*

- family psychology and therapy*. Homewood, IL: The Dorsey Press.
- Boekaerts, M., Maes, S., & Karoly, P.(2005). Self-regulation across domains of applied psychology: Is there an emerging consensus? *Applied Psychology*, 54(2), 149-154.
- Boekaerts, M., Pintrich, P. R., & Zeidner, M.(2000). *Self-regulation: An introductory overview*. Handbook of self-regul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Bolognini, M., Plancherel, B., Bettchart, W., & Halfon, O.(1996). Self-esteem and mental health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Adolescence*, 19, 233-245.
- Cooley, C. H.(1964). *Human nature and social order*. New York: Schocken.
- Coopersmith, S.(1967).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and Company.
- Cornwell, C. J., & Schmitt, M. H.(1990).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body image in women with rheumatoid arthritis of systemic lupus erthematosu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13, 99-107.
- Dent, C. W., Galaif, J., Sussman, S., & Stacy, A.(1993). Demographic, psychol-soci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in samples of actively and passively consented adolescents. *Addictive Behaviors*, 18, 51-56.
- Edwards, W. J.(1996). A Measurement of delinquency differences between a delinquent and non-delinquent Sample: What are the implication? *Adolescence*, 31(12), 973-989.
- Egger, O., & Rauterberg, M.(1996). *Internet behavior and addition*,

<http://www.ifap.bepi.ethz.ch/~egger/ibg/res.html>.

Freud, S.(1923). *The ego and id*. standard edition, 19, London: Hogarth Press, 1961.

Gardyn, R.(2000). *You can't download a hug*. American demographics. 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Society. <http://www.stanford.edu/group/siqss/Press-Release/internetstudy.html>.

Goldberg, I.(1996). *Internet addiction*. Electronic message posted to research discussion list. <http://www.rider.edu/esers/psycyber/supportgp.html>.

Goode, E.(1997). *Deviant behavior*: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Hater, S.(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In J. Suls & A. Greenwald(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Vol. 3)*. Hillsdale. NJ: Erlbaum.

Hobfoll, S. E.(1989). Conservation of resources: A new stress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 513-524.

Jaffe, M. L.(1998). Adolescence. USA: John Wiley & Sons.

Kandell, J. J.(1998). Internet addiction on campus: The vulnerability of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 11-17.

Keepers, G. A.(1990). Pathological preoccupation with video gam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9, 49-50.

Kirschenbaum, D. S., & Wittrock, D. A.(1984).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in sport: A *self-regulatory perspective*. In J. M. Silva & R. S. Weinberg(Eds.).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spor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Kolb, L. C., & Brodie, H. K.(1982). *Modern clinical psychiatry*. W. B.

- Saunders Company.
- Lacey, H. J.(1993). Self-damaging and addictive behavior in bulimia nervosa: A catchment area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3. 190-194.
- Maslow, A. H.(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Y: Haper.
- Mead, G. H.(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schel, W., Ebbesn, E. B., & Zeiss, A. R.(1972). Cognitive and attentional mechanisms in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204-218.
- Mobilia, P.(1993). Gambling as a rational addictio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9(2), 121-151.
- Moore, D.(1995). *The emperor's virtual clothes: The naked truth about the internet culture*. Chapel Hill, NC: Algonquin.
- Mussen, P. H., Conger, J. J., & Kagan, J.(197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Nye, F. I.(1958). *Family relationship and delinquent Behavior*. New York: Wiley.
- Rogers, C.(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ifflin.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avedra, J. M.(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 on the self-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scent male,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hotton, M.(1991). The costs and benefits of computer addiction.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10, 219-230.

- Suler, J.(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users/suler/psycyber/cybaddict.html>.
- Thomas, J. B.(1972). *Self-concept in psychology and education*. A review of research, London: NFFR Publishing Co.
- Yarcheski, A., & Mahon, N. E.(1989). A causal model of positive health practices: The relationship between approach and replication, *Nursing Research*, 38, 88-93.
- Young, K. S.(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Young, K. S.(1997).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on*: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linois.
- Young, K. S.(1998). *Caught in the net*: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John Willey & Sons, Inc.
- Zilbereld, B.(1983). *The shrinking of america*. boston: Little Brown.

ABSTRACT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steem, Regulation and Internet Addiction

Kang, Seok-Ki *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verify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ajor variable causes relevant to adolescents'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at can explain internet addiction. The subject of the study is college students who are between 18 and 24 years old and live in the Daejeon and Chungnam area.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o perform the analysis with the statistics program of SPSS win 12.0 and AMOS 4.0.

In this model, I anticipated that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steem, and regulation affect internet addiction, but found out that the direct causes were self-esteem and regulation, and the variable causes of attitude make an impact on internet addiction only through an indirect route such as regulation and self-esteem. In addition, according to a statistical result, I found that the variable causes of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fluence internet addiction an indirect route of self-esteem by going through regulation.

Key Words: attitud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self-esteem, regulation, internet addic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

투고일 : 4월 29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Kongju University